

완도, 美 장한상 대회서 특산품 1860만 달러 수출 협약

내년 장한상 세계대회 유치·한미 우호 공로상 수상

완도군은 최근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회 장보고 한상 수상자 세계 대회’에 참가해 1860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완도군에 따르면 장한상 어워드는 해외에서 성공한 재외동포 경제인 가운데 장보고 대사의 도전·개척 정신을 계승해 경제·문화 영토 확장과 한인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한상(韓商)을 선발하는 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개국, 4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올해 세계 대회는 미국에서 장한상 수상자인 김민선 톱아일랜드 컨서버토리 학장과 장용진 키스뷰티그룹 회장 공동 주최로 열렸다.이 자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김양호 완도군의회 의장, 김덕룡 (사)장보고글로벌

재단 이사장, 장한상 어워드 역대 수상자, 완도군 수출 업체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계대회는 지난 9일 싱턴DC 연방의사당 매디슨빌딩에서 ‘한국 문화의 날’ 기념행사로 시작됐으며, 완도군 수출 업체와 군 관계자들은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전복 절편, 조미김, 해조류 등 완도 특산품의 우수성과 맛을 알렸다.

11일에는 뉴욕 톱아일랜드 키스뷰티그룹 본사에서 수출 상담회 형태로 열려 완도 특산품 총 186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 워싱턴DC 김치의 날’ 기념식에서는 한미 우호 협력의 공로를 인정받아 완도군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또한 뉴욕시 나소카운티장(Bruce



Blakeman)의 초대로 카운티 청사를 방문해 주요 산업 현장을 견학하며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지난해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번 뉴욕 대회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는 계기

가 됐다”며 “내년에 장보고 대사의 본고장인 완도군에서 개최될 비엔나 대회는 Pre 완도해조류박람회와 연계해 완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곡성몰’ 매출 15억원 돌파

560여종 농축산물 판매… 지역경제 이끄는 온라인 플랫폼 우뚝

곡성군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곡성몰이 지난 14일 누적 매출 15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한층 더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억 원 매출 달성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결과로, 곡성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곡성몰은 곡성군 내 120여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쌀,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60여 종의 고품질 농축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매출 15억 원 달성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가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월 설연휴 기획전부터 정월 대보름 맞이 이벤트, 삼겹살데이 기획전, 곡성몰 입점업체 자체할인 기획전 등 시기별 맞춤형 프로모션이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곡성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쌀 백세미와 한우, 흑돼지가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김부각, 사과, 멜론, 민들장어 등이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곡성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8품목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수요 특가’행사와 ‘전 상품 무료 배송’ 이벤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

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나눔업체 응원 이벤트를 시작하고, 곡성장미축제 특별전, 곡성 멜론 기획전 등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곡성몰은 소비자들은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입점 업체는 매출 증가로 인해 지역 아동을 위한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오는 24일에는 착한 기부에 동참한 기부업체 기획전을 진행하여 지역 상생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몰 담당자는 “앞으로도 품질 좋은 상품과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더욱 사랑받는 쇼핑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곡성=홍경백 기자

국보 ‘종묘 정전’ 장흥産 수제전통기와로 보수 마쳤다

장흥 안양면 전통제와장서 기와 6만여장 제작



장흥군은 국보인 종묘 정전 보수공사에 사용된 전통기와 전량이 장흥 안양면 전통제와장에서 제작됐다고 15일 밝혔다.

종묘 정전 보수(2021년~2025년)에 사용된 기와는 총 6만여장으로 국가무형유산 김창대 제와장과 전승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졌다.

종묘 정전 보수용 수제전통기와에 사용된 기와로는 장흥지역 흙을 중

심으로 전국 5가지 흙을 채취, 혼합해 만들어졌다.

기와는 암기와 성형, 수기와 성형, 암막새 등 장식기와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기와가마에서 소나무를 이용해 36시간 동안 1000~1100도로 구워 완성됐다.

현재 장흥군 안양면 전통제와장 제작공방에서는 조선시대 국가 최고의 제례공간인 사직단 권역 복원을 위

한 수제전통기와를 제작하고 있다.

올 하반기까지 사직단 대문과 안향청 권역 복원용 수제 전통기와를 제작 완료할 계획이다.

장흥군에 따르면 김창대 제와장은 “국보 종묘 정전의 수제전통기와 전량 제작은 제와장이 안정적으로 전승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국가유신청, 장흥군의 역할이 컸다”며 “전승활동 지원, 진입도로 개설, 제와막 신축, 가마보호각과 기와가마축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유산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국가유신청은 종묘 정전 보수공사가 5년 만에 완료됨에 따라 시민이 참여하는 환안제를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다.

환안제는 창덕궁 구(舊)선원전에 임시 봉안되었던 조선 왕과 왕비, 대원제국 황제와 황후의 신주 49위를 종묘 정전으로 다시 모셔오는 행사로 고종7년(1870) 이후 15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임민기 기자

정동원 공연부터 어린이 상어롱쇼까지…강진 ‘들썉’

18~20일 전라병영성 축제 주무대 화려한 볼거리 가득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강진군 전라병영성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28회 전라병영성 축제의 다채로운 공연 라인업에 전국 관광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솟아탕 공연과 조선 마술공연이 예정돼 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예술인 전통 연희 공연, 그리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치! 티니핑’ 공연이 시작된다.

캐치! 티니핑은 어린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어린이 공연으로서 당일 개막 공연이 끝난 오후

5시 30분에 한번 더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는 병마절도사 마천목 장군의 병영성 입성식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병영성 축제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입성식 퍼레이드에는 올해 특별히 7~11세 이하 어린이 30명을 모집해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밝고 활기찬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입성식 퍼레이드의 묘미도 남다를 듯 하다.

입성식퍼레이드가 끝난 후, 오후 3시부터 개막식이 시작되며, 이후에는 미스터트롯 5위를 달성했던 트로트 아이돌 가수 정동원의 개막 축하공

연이 시작된다. 정동원은 ‘효도합시다’, ‘여백’, ‘물망초’ 등 수많은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일 오후 12시 30분부터 핑크퐁과 튜튼밴드의 댄스파티가 준비돼 있다.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키즈 공연으로서 당일 오후 5시에 한번 더 예정돼 있다.

전라병영성축제는 조선의 역사를 담고 있는 전통 축제임에도, 어린이들을 포함한 온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준비를 마쳤다.

/강진=김경성 기자

순천시,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줄인다

청사 내 ‘다회용 컵 대여서비스’ 본격 운영

순천시는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생활 속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회용 컵 대여 서비스’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청사 내 회의, 설명회, 교육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순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다회용기 대여·세척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사전에 청소자원과에 다회용 컵 대여를 신청하고 사용 후 반납하면, 반납된 컵은 고온·살균 과정을 포함한 3단계 세척 단계를 거쳐 안전

하게 재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폐기물 감량 실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목표로, ‘청사 내 텀블러 세척기 설치’, ‘다회용 컵 카페거리 사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신안 ‘섬 수선화 축제’ 성황리에 종료

주민의 60배 넘는 관람객 유치… 섬마을 활기



전국 최대 수선화 군락지를 자랑하는 신안군 선도에서 열린 ‘2025 섬 수선화축제’가 지난 13일, 열흘간의 아름다운 여정을 마무리했다.

봄의 정령이라 불리는 수선화가 선도 전역을 노란빛으로 물들이며 ‘신안의 봄..수선화로 채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총 14.5ha 면적에 17품종, 234만 구의 수선화가 만개해 장관을 이루며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축제 기간 기상이 악화해 여객선이 결항되는 일이 빈번했으나 선도를 찾은 관람객의 수가 선도 주민 200여 명의 60배에 달하는 무려 총 1만 2천여 명이 입도에 “섬이 가라

앉았다”는 섬 주민의 웃음 섞인 농담과 함께 작은 섬마을의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이번 축제 기간에는 신안군의 대표정책인 ‘colorfull+신안’을 캠페인 방식으로 홍보하고 노란색 의상 착용 관람객에는 입장료의 반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펼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축제 관계자는 “이번 수선화 축제를 통해 신안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기반으로 한 힐링 명소로서의 자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비록 축제는 막을 내렸지만, 4월 말까지 수선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안=정영국 기자

영암, 건강프로그램이 기업 사업장 찾아간다

HD현대삼호 등과 업무협약…‘사업장 건강 One plus’ 운영

영암군이 지난 14일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HD현대삼호, HD현대삼호사내협력사협의회,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건강 One plus’를 운영한다.

2023년 업무협약으로 영암군에서 첫 시작된 이 사업은, 기업 직원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7개 보건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찾아가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 동안 사업 시행 결과, 참여 기업 직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기

업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 요구도 있어, 영암군은 이날 사업 확대 업무협약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에 함께 해 근로격체질환 예방관리사업, 소음성난청 예방관리사업 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더 강화해 지역 기업과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형주 기자

무안, 전남도체육대회 출정식… 힘찬 출발

23개 종목 360여 명 선수단 구성… 종합 7위 목표



무안군은 지난 11일 무안초등학교 명선관에서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출정식을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출정식에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이호성 군의회 의장, 류준오 군체육회 회장, 종목별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대표 선서, 선수단기 이상 등 퍼포먼스를 진

행하며 무안군의 선전을 기원했다.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제64회 전라남도체육대회는 오는 18일부터 21까지 장성군 일원에서 열린다.

군은 이번 대회에 총 23개 종목, 36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했으며, 종합순위 7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무안=김상훈 기자